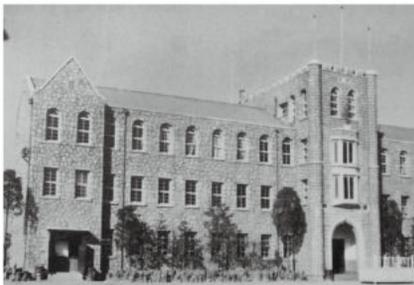


개교 73주년을 축하합니다!

— 십자관 리모델링 —



1957년 십자관의 모습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 김영순 장로님



2019년 미래유산 선정



2020년 십자관 현관



구름 기둥, 불기둥(문화) 상징

개교 73주년을 맞이하여 본교 십자관 현관을 리모델링 하였다. 본교 십자관의 경우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이라는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으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미션 스쿨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건물이다. 건물의 이름인 '십자(十字)'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현관 입구의 형상은 촛불 모양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희생의 의미를 상징한다. 십자관 내부에는 설립자 김영순 장로님과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흉상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있는 원형의 등(燈)은 출애굽기 13장 1절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구름기둥(雲)과 불기둥(火)을 상징하고 있고 본교 재단의 이름인 운화(雲火) 학원을 상징한다. 십자관은 1957년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와 석조를 병용한 학교 건축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2019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73주년 개교기념식을 맞이하여



김은미 이사장님

1947년 개교한 환일중고등학교가 어느덧 73주년의 개교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의 노고와 73년간 환일을 졸업한 모든 이들의 땀과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의 고단함과 인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환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환일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섬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단순한 표어를 가슴에 담고 묵묵히, 묵묵히 설립자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오늘의 환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환일 중고등학생들의 땀과 노고와 재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환일의 이름을 드높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과 주관하심으로 미래를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주님의 큰 손에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저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의지를 함께 하여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걸어갈 것입니다.

환일 교정에서 지냈던 아름다운 시절은 앞으로 인생을 걸어가길 원동력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나는 소중한 시기의 푸근하고 아름다운 고향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온 교정을 감동아 우리 영혼의 소망과 희망을 키워 나아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환일을 지향하는 내 영혼의 안식처이며 꿈의 고향입니다.

환일의 언덕길을 올라오면서 수많은 계단을 성큼성큼 밟고 올라와 하늘 아래,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환일의 기상을 먹고 자라 내 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내재된 자신의 꿈을 계발하고 숨겨진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랑과 평화의 동산입니다.

환일의 굳센과 끈기와 인내를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 누리, 삼천리 방방곡곡, 전 세계를 누비며 펼치고 이룩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향하여 이루는 환일의 미래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천년 왕국의 건설에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개교 7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글

2면 소감문, 환일 역사 73년을 되돌아 보며...

3면-6면 학교행사

7면 학교소식, 8면 특집기사

9면-11면 소감문

12면 수상 및 2학기 주요일정



2020 자랑스러운 교직원 대상 수상자 소감문

문화상

한재혁 부장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2010년, 전보 발령을 받아 환일 교정에 처음 들어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구입니다. 그 어떤 명언보다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탓에 지금까지 그저 걷는다는 생각으로 교사로서의 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었을 뿐인데 그때마다 선·후배 선생님들께서 혼훈한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셨고 저를 거쳐 간 수많은 학생들이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따라서 개교 73주년을 맞아 이사장님께서 수여해 주신 '문화상'은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환일고등학교 선·후배 동료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주신 상이며 그저 제가 대표로 수상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손길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지금보다 더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인숙 중학교 행정실장



환일 교정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학교를 퇴직하고 다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환일 교정에서 인생의 30대를 보내고 어느덧 4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이번 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정실 선생님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실 선생님들 덕분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배려하고 웃으면서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의 역할은 선생님과 학생들 뒤에서 즐겁고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축복에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서 언제나 환일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보상

구정희 부장



환일고등학교에서 근무한지 2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난 수많은 학생들의 순수한 눈이 떠오르며 제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면서 벗이 되지 못 하거나 벗이면서 스승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도 벗도 아니다'라는 어느 책 글귀를 생각하며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꿈을 갖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주신 독보상은 다시 처음 학생들 앞에 서던 순간을 생각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교직원생활을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만들어 가라는 체적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언제나 제 편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승남 중학교 교무부장



사회수업 시간에 항상 무기력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학생으로 당연히 성격도 좋지 않았고, 전 그 학생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러던 어느 날, 봉학마루제를 준비하기 위해 미술실에 모여 그림도 그리고 조형물을 제작할 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그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이가 뭘 하겠어?'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창문 밖 남산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림 실력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드락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 하나 하나가 가진 능력이 모두 다른데, 그동안 전 한 부분만 보고 학생들을 판단해 왔던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한 면이 많은 제가 아직까지 교사로서 학교에 있다는 것은 제가 단지 학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채워야 할 것이 많은 저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일 역사 73년을 되돌아 보며.....



1969년 태권도부



2020년 3학년 체육대회



1989년 체육대회(씨름)



1973년 사격부



1990년 체육대회(고싸움)

환일고등학교는 2020년 9월26일 개교 73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환일고등학교의 시작은 1947년 설립자 윤화 김영순 장로와 독보 김예환 박사로 부터 시작된다. 환일은 초기에 규명중학교라는 이름으로 6년제 24학급을 운영하여 시작했고, 이후 중,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환일고등학교는 이후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경전, 애국, 애인이라는 교훈 아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일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학교운영 종합우수교로 교육감상을 2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으며, 무려 수능만점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지금의 이사장님이신 김은미 박사님께서 이사장님에 취임하셨다.

김은미 이사장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2013년에 환일로 오셨다. 김은미 이사장님께서 처음 환일에 오셨을 때 급식실이 작아 힘들어하던 환일 학생들을 위해 급식 빌딩 경천관을 추진하셨고, 덕분에 환일 학생들이 급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 샤워실과 다목적실, 학생카페 등을 완공, 설치하셨고, 통학로를 2개나 더 만들어 피곤한 학생들의 등굣길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셨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방과후 수업의 과목을 기존의 국영수 위주에서 예체능 과목이 추가되었고,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명사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특강대회, 창의 학술 보고서 대회 등 학생 개별탐구활동과 영어 특색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엿보인다. 이처럼 김은미 이사장님께서 환일 학생들을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셨다.

2020년인 올해는 교육부에서 '인공지능(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인공지능(AI)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일고등학교의 끊임없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2학년 임현석 기자



학교행사

인문학 특강 '역사 공부의 필요성'

2020년 8월 26일 경천관 2층에서 1, 2, 3학년 신청자 33명이 김정민 박사가 진행하는 '역사 공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였다. 김정민 박사는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작왕 채널'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다수 역사, 국제 관계에 관련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인문학 특강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주제별로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참가 대상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후 인문학 특강 날 주제에 관련한 강의를 듣고, 강의와 관련된 토론 주제를 강사가 3개 제시하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선택한 주제로 조별 토론을 실시한다. 조별 토론이 끝나면 조별로 발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역사 공부의 필요성'이라는 특강 후 제시된 토론 주제는 '역사 공부의 목적', '과거의 역사 공부가 현재 도움이 되는가', '세계화와 역사 공부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열린 토론 후 전지에 자신들의 의견이나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을 참가하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사회과 선생님들의 심사 결과 1학년 안우진, 이민재, 이영웅 조가 금상을 차지했고 1학년 이준혁, 조효연, 이준혁 조가 은상을 차지했다. 2, 3학년도 참여하는 조별 발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2학년 정승민 기자



인문학 특강 소감문

인문학 특강 소감문

1학년 안우진



2020년 8월 26일 환일고등학교 경천관에서 외부강사 김정민 강사님의 '역사교육이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의가 있었다.

그 강의에는 1학년뿐 아니라 2,3학년 선배님들과 이사장님, 학교 부장 선생님들도 참석하셨다. 김정민 강사님은 역사의 가치, 세계화 등 여러 주제의 인문학에 대해서 심도 깊은 강의를 해주시면 역사학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강의를 마치고 3명씩 11개조로 나누어 첫 번째 '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두 번째 '과거에 있는 역사는 현재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세 번째 '세계화와 역사공부는 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토론하였고 이후 3가지의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토론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주제 '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에 나온 의견 내용은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고 한다. 이것은 미래에 반영하기 위해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봤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로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자기나라의 땅이라고 우길 때 증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것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역사를 알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발표였다.

두 번째 주제 '과거에 있는 역사는 현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나온 의견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둘로 나뉘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인간으로서 자기발전 즉, 정체성 발견에 도움을 주고, 역사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추리력,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조상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다는 많은 의견이 나왔고, 부정적 영향에는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경험만을 토대로 변화를 거부하는 면이 생기기도 한다.' 라는 발표였다.

세 번째 '세계화와 역사공부는 같이 할 수 있는가?' 에 나온 의견은 '우리나라 역사의 가치를 알고 상품화하여 세계화를 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와 세계사는 같이 공부 할 수 있다.' 라는 발표였다.

우리 조는 '과거에 있는 역사는 현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의 주제를 발표하여 금상이라는 가치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 식민사관이 심어준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패배주의, 비하의식에서 우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역사의 가치와 역사라는 학문을 왜 배우는지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과 친구들의 토론발표를 듣고 '이렇게도 생각 할 수 있구나' 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8월 26일에 나는 "역사 공부는 왜 필요한가" 에 관한 인문학 특강을 듣고, 후에 친구들과 역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결국 은상을 받게 되었다.

"역사 공부는 왜 필요한가" 의 특강에서는 역사 공부와 역사가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강사님께서 알려주셨다. 강사님은 역사는 정통성이 중요하고, 역사를 통해 현대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셨다. 그의 예로 신라, 고려인의 조상이 중앙 아시아 유목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셨고, 또한 만주가 신라의 땅이라고 말한 청나라 역사서 등을 근거로 활용하여 현재 미증갈등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 샤머니즘 신앙, 모계 유전자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신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강의가 끝나고 짧은 질의 응답 시간 이후에 친구들, 9반 이준혁과 조효연과 만든 조를 바탕으로, 특강과 관련된 세 개의 주제를 제시받고 이중 하나를 고르고 토론 후 발표를 하게 되었다. 세 개의 주제는 "역사 공부의 목적", "역사는 도움이 되는가", "세계화와 역사 공부가 동시에 공존하고 병행할 수 있는가" 이었다. 우리는 이중 "역사는 도움이 되는가"를 고르고, 역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을 한 후 역사가 도움이 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역사는 크게 명분으로 사용하여 이익이나 정당성을 얻거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독도 문제와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안슐루스)를 명분으로써의 역사에 근거로, 과거의 전염병과 코로나를 역사의 미래 예측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독도 문제는 효연이가, 안슐루스는 준혁이가, 전염병과 코로나는 내가 조사하게 되면서 협력을 통해 발표를 준비하였다.

발표는 준혁이가 하기로 결정되었다. 발표가 시작하자 다른 조의 토의와 주제에 대해 경청을 하였는데, 모두 너무 논리적으로 잘 발표를 하였다. 특히 세계화와 역사 공부의 병행에 관해 발표를 한 1조와 7조의 발표가 매우 흥미롭고, 반대와 찬성 측 의견 모두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11조 모두 발표가 끝난 후 결과는 바로 발표되었다.

다른 조들이 너무 잘하여 솔직히 상 자체를 받지 못할 줄 알았다. 이러한 나의 예상과 다르게 은상을 부여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였다. 이 상은 독도 문제에 대한 효연이와 안슐루스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생각해낸 준혁이의 협력과 협동이 없었으면 부여받지 못했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도 감사하였다. 특히 발표를 하는 준혁이가 발표를 잘 소화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여 우리가 수상할 수 있었던 같다.

특강을 통해 역사 공부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역사가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게 되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역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현재까지 취미로 삼고 있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하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친구들과 토론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연습도 하여 여러모로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학교행사

영재 캠프 실시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본교에서는 영재 캠프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영재학급은 시작이 늦었다. 앞의 영재수업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진행된 영재캠프라 우리 모두 무엇을 할지 들떠있었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영재캠프는 영재학급 소속 학생들이 과학, 수학, 융합 분야의 실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4일 동안 진행된 영재캠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은 수학 분야의 페르마 점 찾기이다. 페르마 점이란 도형의 꼭짓점과 거리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점을 의미한다. 처음엔 선생님께서 페르마 점을 수학적으로 찾는 방법을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도형 틀을 빨대로 만들어 비눗물에 담갔다 뾰았다. 그러면 도형 틀에 비눗물이 벽을 이루는데 그 벽들이 만나는 점이 페르마 점인 것이다. 비눗물로 페르마 점을 찾을 수 있는 원리는 표면장력이다. 표면장력이 작용하는 원리가 액체의 표면에서 표면을 작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4일차에는 창의적 산출물 대회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각 조들은 자신들이 정한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 발표했고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 모든 조들이 영재캠프에서 배우고 실험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급 이수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

2학년 이현규기자



자유낙하 실험



산화 환원 실험



페르마 포인트 실험



영어 에세이 대회 실시

2020 English Essay Competition 실시



2020년 8월 24일 환일고등학교 영어 1실 및 고2 홈페이지에서 2020 English Essay Competition을 실시하였다.

2020 English Essay Competition은 논리적 의견 제시력과 영어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고등학교 1, 2학년 중 희망학생을 사전에 모집하고 대회 당일 에세이 주제 발표 및 쓰기 대회를 실시한다.

올해 주제는 첫 번째 '도시나 시골에서 사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두 번째는 '신문에 범죄 기사가 많은 이유와, 미담 기사와 범죄 기사의 균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세 번째는 '코로나가 사회적, 학문적, 개인적으로 바꾼 생활상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대회 평가자로는 본교 원어민 선생님인 Sheridan 선생님, 1, 2학년 영어담당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셨다.

심사 결과 금상은 1학년 이준혁, 2학년 정찬우, 은상은 1학년 박주형, 2학년 배찬희, 동상은 1학년 신재운, 2학년 노민욱이 각각 수상하였다.



성경퀴즈대회

제 41회 성경퀴즈대회 실시



2020년 7월 29일 5-6교시 환일고등학교 제41회 성경퀴즈대회를 본교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성경퀴즈 대회는 환일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기에 학생들에게 성경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년별로 등교일이 달라 올해에는 2학년 등교일에 맞춰 성경퀴즈대회가 진행되어 1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

퀴즈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하였는데 단체전의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3명을 추천하여 학급 단체전 선수 확정하였고 개인전인 왕중왕전의 경우 출전 희망자를 각반에서 2명을 사전에 추천하여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체전의 경우 성경 말씀 중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퀴즈 대회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김철우 전도사님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각 반을 대표하는 학생이 출전하였기에 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체육 중점반 학생들의 열띤 응원이 돋보였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작년에 이어 두 번째하는 성경퀴즈대회인 만큼 반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진지했다. 단체전의 1위는 2학년 1반 이승원 선생님반, 2위는 2학년 6반 김춘근 선생님반, 3위는 2학년 4반 이은형 선생님반이 차지했고 열띤 응원을 한 2학년 10반에게 응원상이 돌아갔다.

개인전이자 왕중왕전은 탁우빈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성경 말씀 중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퀴즈 대회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작년에 개인전 2위에 그쳤던 2학년 8반 박창하 학생이 올해에는 개인전 1위를 달성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2위, 3위를 각각 달성한 2학년 7반 김명진 학생, 2학년 2반 최예준 학생도 왕중왕전 답게 퀴즈 대회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참가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학년 류호빈 기자



학교행사

3학년 문화 탐방 및 졸업 사진 촬영

2020년 7월 23일 환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문화 탐방 겸 졸업 사진을 찍기 위해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다른 해 같으면 장소가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이었을 텐데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른 해와 다른 용산 전쟁 기념관으로 장소가 정해졌다. 아침에 반마다 다 모인 순서로 순번을 정해 사진을 찍기로 했고 어느 순간 3학년 학생들 전원이 모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1학기 기말 고사를 치른 후 활동이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사진 촬영에 임할 수 있었고 각 반 학생들끼리 졸업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쟁 기념관 옆쪽의 잔디밭에 탱크를 비롯한 여러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각 반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포즈를 취한 뒤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촬영을 마친 반들은 순서대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찍힌 각 반 학생들과 선생님의 단체 사진은 환일고등학교 3학년 졸업앨범에 기재될 사진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얼마나 멋진 사진들이 졸업 앨범에 수록될지 기대가 된다.

3학년 최승정 기자



1, 2학년 학부모 간담회 실시

2020년 8월 6일 1학년 학부모 간담회, 8월 7일 2학년 학부모 간담회를 15:00부터 경천관 2층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고등학교 입학식도 3월이 아닌 6월이어야 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하는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권고하고 1, 2학년 학생들은 그에 따라 교차를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1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계속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학년의 경우 선택 과목에 의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진로 계열이 정해진 상황이지만 '2015 교육 과정'에 따른 2022 대입에 관한 궁금증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학부모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 먼저 김은미 이사장님과 박종관 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 이정철 교감님의 학교 교육 활동 안내가 있었다. 최원호 교무부장님의 주요 학사 일정 안내가 있었고, 박현주 1학년 부장님, 이승원 2학년 부장님의 2학기 시험일정 안내 등은 2학기에 전반적인 학교 일정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였다. 1학년 국어과 박창희 선생님, 2학년 김경신 선생님, 수학과 1학년 배수화 선생님, 2학년 박경하 선생님, 1학년 영어과 박현주, 변영지 선생님, 2학년 이준형 선생님께서 구성된 TF팀의 과목별 학습전략 안내 후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한양대 공학캠프 실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양대 공학캠프가 2020년 8월3일-8월6일까지 본교에서 실시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과 여름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첨단과학 기술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한양대 교수 및 전임강사를 주축으로 강의 진행하였고 특강의 주제는 '학교에서 배운 화학원리에 기초한 첨단과학 기술공학'에 관한 것이었다. 캠프에 참여를 원하는 1학년 학생 18명과 2학년 학생 2명 총 2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특강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공학 기술에 관한 내용과 초음파 가습기의 원리에 대한 내용, 온도 차에 의해 움직이는 회진목마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했던 원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학기 때는 '학교에서 배운 물리 원리에 기초한 첨단 과학기술 공학'에 관한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학년 허승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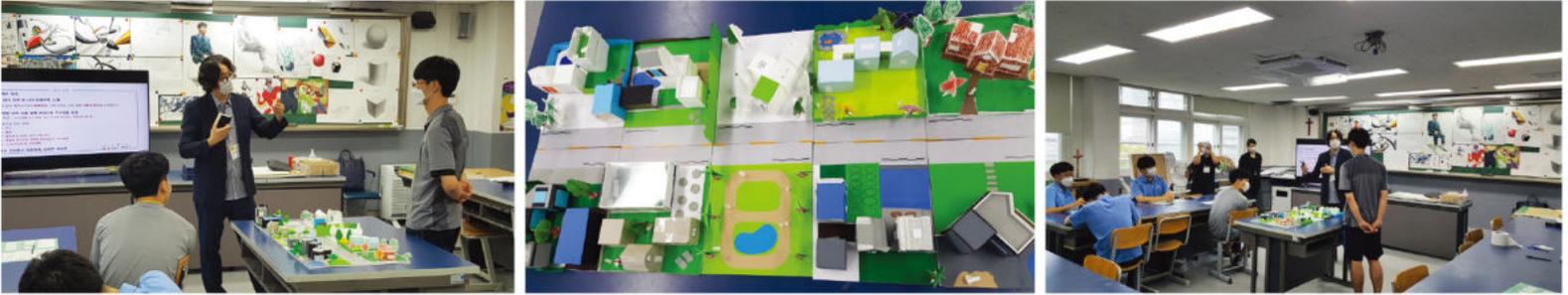


학교행사

건축학교 실시

중구청과 연계하여 본교에서는 2020년 8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봉학과 미술실에서 건축학교를 진행하였다.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평소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진로를 건축 계열로 정한 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여름 방학 방과후 시간 이후인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첫 번째 수업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20년 후의 자신의 직업과 가족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시간과 대학에서의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와의 관한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두 번째 수업은 나의 집을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에 앞서서 어떻게 나의 집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상한 나의 집을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수업은 조준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만든 집들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청 학생들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건축학교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진로를 건축학으로 정해서 진지하게 건축 학도의 길을 걷기 전 건축학을 체험해 보는 학생도 있었다. 건축학교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건축학이라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 무심히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 기회가 되었다.

2학년 성락원 기자



공유캠퍼스 S/W동아리 수업 실시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유캠퍼스 S/W동아리 수업을 공유캠퍼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 벤쿠버실에서 실시하였다. 1학기에는 '3D프린팅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프리미어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D프린팅의 이해와 활용' 수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3D 기술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방법들을 경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본교 정보부장인 임부현 부장님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총 5차시로 진행하였는데 3D 캐디안 선형생성, 2차원 수정, 보기, 선택에 관한 수업이 첫 수업이었고 3D 레일 축회전, 블렌딩, 투영, 윤곽, 예제를 통한 기능 익히기, 3D 모델링 따라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12각형 시계, 배트맨, 비누받침대 등을 모델링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과 여름 방학 중인데도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한여름 밤의 축구대회 실시

2020년 7월 28일은 1학년 학생들 대상, 7월 29일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일에 걸쳐 한여름 밤의 축구대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이 아니라면 1, 2학년 모두 같은 날 축구대회를 실시하여서 여름밤에 즐기는 축구대회의 맛을 느끼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였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년별로 나누어서 축구대회를 실시하였다. 1학년 대회의 경우 1, 2반이 연합하여 환일팀, 3, 4, 5반이 연합하여 경천팀, 6, 7, 8반이 연합하여 애국팀, 9, 10반이 연합하여 애인팀으로 구성되어 전·후반 15분 경기 팀별 토너먼트로 진행하였다. 우승은 3, 4, 5반이 연합한 경천팀에게 돌아갔다. 2학년 대회의 경우 1, 10반이 연합한 환일팀, 2, 7반이 연합한 경천팀, 3, 8, 9반이 연합한 애국팀, 4, 5, 6반이 연합한 애인팀으로 구성하였고 경기진행 방법은 1학년과 동일하였다. 우승은 1, 10반이 연합한 환일팀에게로 돌아갔다. 기말고사 직후 가진 행사여서 학생들이 경기의 승패에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축구에 몰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학년 정다운 기자





학교소식

리더십 캠프 실시

2020년 7월 30일 환일고등학교의 학생회, 학급 회장 부회장 간부들이 모여서 리더십 캠프를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다른 해 같으면 학교 밖의 장소에서 수상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리더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강을 듣기도 하는데 올해 리더십 캠프 역시 코로나의 여파로 학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리더십 캠프에서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이 있었는데 A조, B조, C조, D조로 팀을 나눠 축구 농구 족구 3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포츠 활동 이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없어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 중식으로 피자과 햄버거를 먹었다. 중식을 먹은 후에 학생들 모두가 뒷정리를 아주 깔끔히 했다. 그리고 간부 학생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전교 회장, 부회장이 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고 학생회에 새로 들어온 1학년 간부들과 2학년 간부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석식으로 통째리 바비큐를 먹었는데 그 많은 고기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기지 않고 석식을 먹은 후에도 간부 학생들 모두가 먹었던 자리를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캠프에서 모든 간부 학생들이 간부로서의 태도를 보였다. 짧은 캠프였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

2학년 박준형 기자



68대 학생회 출범

2020년은 환일고등학교 68대 학생회가 출범하는 해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이다.

환일고등학교 학생회는 학교의 주된 행사를 주관하고 돕는 역할이 핵심 역할이다. 그런 만큼 학생회가 하는 주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은 봉학마루제 준비이다.

봉학마루제는 학생회 주도 축제이기 때문에 배정받은 예산을 통해 축제 계획을 짠다. 그 과정에서 학생회는 많은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 그리고 축제 날 서로 역할을 나눠 관리할 부스를 정한다. 작년 축제의 경우 스포츠 대회 관리, 장기자랑, 전시파트 등 관리해야할 곳을 나눠 역할 분담을 했다. 또한 수능응원도 학생회가 해야 할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선배들의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일찍 수능시험장에 도착하여 수능응원을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비시간에 질서 유지를 하는 것, 전교회장, 부회장 선거를 할 때 개표를 돕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을 한다. 이렇듯 학생회는 교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름과 겨울에 있는 리더십 캠프는 선후배 학생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리더십을 다지는 좋은 활동이다. 68대 학생회 임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학년 이현규 기자



2020(21)학년도 제 68대 학생회 임원 조직표

회장단		부장단							
학생회장 이현연	부회장 박준형	기획부장 손민우	총무부장 이현규	선교부장 이진호	생활부장 강건	자치법정부장 안울	예체능부장 손정민	동아리지원부장 배찬희	봉사부장 이태연
학년장									
2학년 장 나승민	1학년 장 박준형	정보부장 고성주	환경부장 김정민	생활안전부장 김현수	보건부장 김동민	문예창작부장 성락원	특성화부장 구동근	홍보부장 황건호	
부학년장		차장단							
2학년 류호빈	1학년 이중호	기획차장 옥민수	총무차장 이승현	선교차장 송민규	생활차장 홍정현	자치법정차장 오제영	예체능차장 신승우	동아리지원차장 박도원	봉사차장 윤기훈
서기									
2학년 박서진	1학년 김세중	정보차장 안성준	환경차장 이민재	생활안전차장 김은성	보건차장 송원준	문예창작차장 변정민	특성화차장 고준영	홍보차장 임준서	



특집기사 - 내 인생의 최애(最愛) 도서

교감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교감 이정철



<갈매기의 꿈>(리처드 바크 지음, 신동운 옮김, 청록)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제가 소개해드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 나온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 잠시나마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까지 들어 행복했습니다. 먼저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조나단 주변의 갈매기들은 지극히 단순한 비상(飛翔) 이상의 것은 배우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해변을 떠나 먹이를 비축하고 되돌아오는 것 이상은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높이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꿈을 위해 수없이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비행을 그쳐 먹이 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갈매기 집단은 조나단의 꿈을 인정해주지 않고, 조나단은 결국 집단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외딴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나단의 비행을 응원해주는 스승 설리반을 만나게 되고 자유를 갈망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고공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조나단에게도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제자들 또한 조나단과 같이 집단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 조나단은 자신들을 추방시킨 집단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추방당한 세계로 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조나단은 자신을 고독으로 내몬 무리들 속에 있는 선함을 볼 수 있는 것을 '즐거운 일'이라며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추방한 갈매기들에게 보란 듯이 멋진 비행을 펼치죠. 처음에는 갈매기 집단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 외면을 받지만, 점차 조나단과 그의 제자의 비행실력을 인정하고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와 비행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까?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구절이 고1의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열정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일인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그리고 미래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설 속 내용처럼 단순히 먹기만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더 학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끝으로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한 구절로 제 책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를 힘도 같이 주어진다.

교무부장님이 추천하는 책!

교무부장 최원호



제가 소개 할 최애(最愛)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책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 성서는 <구약성서>·<신약성서>로 구성됩니다. <구약성서>는 원래 유대교의 경전이었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합친 성경전서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입니다. 한국에는 성서가 전해진 것은 중국의 한문성서였습니다. 1832년 네덜란드 성서공회 소속 구츨라프(K. F. A. Gutzlaff)에 의해서였고, 한글 성서번역도 이미 1882년 일본에서는 이수정(李樹廷)의 노력으로,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 Ross)와 맥킨타이어(J. McIntyre)가 이용찬(李應贊)의 여러 한국청년들의 도움으로 1887년에 신약성서 『예수성경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서공회에 의해서 한글 최초의 공인역 『신약성서』가 출간된 것은 1906년이었고, 『구약성서』는 1910년에 번역을 완성하고 1911년에 출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살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햇빛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햇빛과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말씀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우리의 생명이 되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젓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성지 곳곳에 신앙의 자취가 남겨진 곳에서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사실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지역에 1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권으로 분리된 성경책을 일부분씩 돌려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생명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독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유소연 사서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곤살로 모우레 글, 알리시아 바렐라 그림, 북극곰)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그림책이란 어린이들만 읽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서울 북 페스티벌에서 이 그림책을 만난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El Arenzue Rojo'(빨간 청어)지만 한국어로 번역·출간하며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반 그림책과 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글 작가가 있는데 삽화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리시아 바렐라 삽화가는 어느 한 공원의 풍경과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열 두 장면으로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붉은 물고기가 공원을 마치 헤엄치는 것처럼 그린 점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곤살로 모우레 작가가 쓴 몇몇 인물의 사연이 7개가 실려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공원에 그려진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7가지 이야기를 통해 풍경의

로만 보였던 동물, 할머니, 아이 등 다양한 인물이 다시 보이길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웃기만 스치던 이들도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이 보석처럼 반짝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과 대화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책이라 내용이 짧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소 짓게 하는 따뜻함이 있는 책입니다. 천천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학책 2권

국어과 홍승강 교사



<수학이 필요한 순간> (김민형 지음, 편집부 옮김, 인플루엔셜) <인생은 오묘한 수학 방정식> (클레망스 강디요, 김세리 역, 재미마주)

2+2=(),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 이제 더 이른 나이부터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다. 연산실력이 중요하며 이 재미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어린 시절 주산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뽐내곤 했었다. 무려 주산 2단, 암산 1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나는 수포자(수학포기자)였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재미 없었다. 수학문제를 푸는 게.

() () () = 4. ()에 숫자나 기호를 활용하여 식을 완성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2 \times 2 = 4$, $2 \div 1/2 = 4$ 등등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업 시간 한 학생은 이렇게 썼다. $1 - 1 = 4$. 학생의 답변이 재미있었다. 이런 수업이었다면 나도 어쩌면 수포자가 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 문제를 여러분들도 한 번 풀어보기 바란다.



이 책들을 읽으며, 수학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수포자였던 나도 생각하는 것은 좋아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알아가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이 책 2장에서 언급한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에서 중력, 만유인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을 2018년 수능을 2주 앞둔 고3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해 줘서 뭐하나 싶어서 안 해주었다.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 말이 많은 수능 국어 31번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을 했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수학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특히, <인생은 오묘한 수학 방정식>은 옛날 줄라맨 형식의 만화로 되어 있어 수학의 원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기 바란다.



2020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수상자 소감문

과학영재 부문

2학년 2반 고성주



안녕하세요. 이번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과학영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고성주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일의 터전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영재학급을 비롯한 활동을 하면서,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기 위해 과학자라는 꿈을 실현하려면 어떤 로드맵을 짜야 하는지 활동들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매진하여 학생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로드맵의 시작임을 알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행동하였기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도 교훈을 얻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저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이 제 목적이 아닌, 목표를 위한 이정표로써 마음에 간직하고 더욱 노력하여 환일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3반 김현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과학영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김현수입니다. 먼저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학교 생활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과학 영재반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 부족했던 과학적인 지식과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재반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성취감이 높았고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환일 학생들 모두가 받았으면 하는 상이며 저도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부문

3학년 3반 김용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미래인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김용현입니다. 이 상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저와 함께 해준 친구들, 선배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란 것에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환일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학하면서부터 학업은 물론이고 스포츠 클럽, 합창 대회와 같은 예체능의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음에 많은 것들을 환일 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을 3년간 이끌고, 경배와 찬양팀의 인도자로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의 이름처럼 환일 고등학교를 통해 미래의 인재가 되는 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8반 진선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미래인재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진선우입니다. 제가 수상 할 줄은 몰랐는데 받게 되니 기쁘고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올해 코로나의 문제로 대안교실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으며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의 미래를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신 이화평 선생님께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합인재 부문

2학년 8반 나승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융합인재 부문에 선정된 나승민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습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논문을 쓰거나 토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 영재에 선발되어 영재 수업을 들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융합분야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학년 1반 정찬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융합인재 부문에 받게 된 정찬우입니다. 먼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여러 활동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일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영재학급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발표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융합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나아가는 자세로 임했기에 좌절하지 않고 활동에서 겪은 모든 것을 배울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워 더욱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인재 부문

2학년 7반 임성주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창의인재부문 수상자에 선정된 임성주입니다. 소감에 앞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매사에 열심인 많은 환일 학우에 비해 전 잘난 학생이 아닌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항상 아껴주시고 서포트해주시는 미술부 이은주 선생님께서 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진로선택이나 성적관리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저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셨고,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 열정적이고 다정하신 많은 환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경쟁이라는 포맷에서도 우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를 얻고, 의지하여 발전을 기하는 멋진 학우들에게도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인들과 제가 속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사람, 예술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학년 5반 송준



안녕하세요. 이번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창의인재 부문에 선정된 송준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도록 도와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합창대회, 성가경연대회에 반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 해 볼 기회도, 용기도 없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실수없이 완벽하게 무대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 취소되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영재 부문

3학년 6반 윤서영



안녕하세요! '2020년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체육영재 부문에 선정된 윤서영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큰 상을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일고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격선수로서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준비한 기량을 펼쳐보지 못한 채 모든 시합이 취소되었지만 한결같이 지원해 주신 김은미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감독님, 코치님의 정성 어린 지도 덕분에 제 꿈을 향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3학년 학교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졸업 후에도 자랑스러운 환일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환일을 빛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10반 이승훈



안녕하세요! '2020년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 체육영재 부문에서 선정된 이승훈입니다. 전학온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격선수로서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학교에 감사한데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큰 상을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은 대회가 거의 취소되었지만 3학년 때는 올해보다 열심히 해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학년 때 전학을 와서 학교에 적응해야 할 때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담임 이준형 선생님, 2학년 체육 중점반 담임 허동명 선생님, 사격부 감독님, 코치님의 정성 어린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환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일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격선수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건축학교 소감문

1학년 현승준



가장 통신문을 받은 것을 아마 방학 전, 7월 달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 건축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건축의 기초는 뭐 어땠고 저렇고 우리나라의 건축의 역사는 뭐고 하는 따분한 수업일 줄 예상했지만, 평소에 건축이라는 그 우아한 분야에 호기심이 있었던 터라 속는 셈 치고 신청을 했다.

첫 수업 때 미술실에 가 보니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건축가 선생님하고 동국대에 재학 중이신 건축학과 학생이었다. 건축가 선생님께서는 파리도 다녀오시고,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하신 분이였다.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될 수업은 원래는 더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수업이지만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직접 바꾸신 것이라고 하셨다. 총 다섯 동안 수업을 했는데, 첫날에는 내가 미래에 살게 될 집을 구상해보는 것이었다. 뭔가 주제가 식상하게 느껴지지만 달랐다. 30년 후에 가족이 생긴 집을 구상해보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구상 후 다음 날 TV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를 생각하면 집을 설계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메스에다가 외벽, 문, 창 등을 붙여서 만드느라 쉽지않은 않았지만,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내 생각과 내가 평소에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의 뛰어난 설명을 들으며 활동을 진행했기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간단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 대학생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직접 제작을 하지만 단지 더 오래 걸리고 높은 완성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한다는 것을 빼고는 같다고 하셨다. 그 말에 부응하듯이 확실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던 제작시간이 끝이 났다. 또, 건축학교 반 안의 분위기도 확실히 초반에 비해 더 밀도 있어지고 다들 자신의 작품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날 제작이 끝난 후 사진작가님께서 책에 실는다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는 날에는 사진을 찍기 전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작품들을 보시고 직접 설명도 듣고 직접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역시 '교수는 교수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내 집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정확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했던 부분을 집어내시거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점들도 알려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그전에는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설계만 하면 된다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는 집에는 많은 요소들과 거쳐야 하는 손길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집요한 것 같다.

영재캠프 소감문

2학년 김민규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날, 영재학급 학생들이 4일간 영재캠프에 참가하였다. 우선 첫 날은 과학 관련 활동을 하였는데, 맴돌이 전류 관련 활동을 하여 자가 발전기 키트로 흔들는 LED 발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빼면 유도 전류가 흘러 자기 전류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중학교 때도 했던 활동에 새로운 과학 원리를 접목시키니 정말 인상 깊었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자 뿌듯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동시낙하 실험을 하였는데 공이 정말로 사진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찍어서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스펙트럼도 관찰하였는데, 간이 분광기로 관찰하니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색깔이 기체마다 나와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빛의 파장이 기체마다 달라서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날에는 은 석출로 알루미늄 표찰을 만들고 질산 은 용액으로 화학 반응을 하는 등의 화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질산은을 전기분해 하여 극 부분에 은이 석출되는 것이 아주 신기하였다. 전기 분해의 원리는 전기를 흘려 보내면 화합물이 서로 분해되어 다른 극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셋째 날은 수학에 관련된 실험을 하였는데, '파스칼의 점'이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을 배웠다. 파스칼의 점과 관련된 문제를 풀지 못해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선생님께서는 비눗물과 수조를 가져다 주시면서 비눗방울이 만나는 점이 곧 파스칼의 점이라고 하셨다. 그날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면서 그 도형의 파스칼 점을 찾았다. 가장 신기한 것은 정육면체였는데, 파스칼 점이 2개나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창의적 산출물 대회 중간 발표를 했는데, 11개 모둠이 전기분해, 방사성 물질, 컴퓨터 알고리즘의 규칙성, 살균효과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영재캠프를 바탕으로 10월에 있을 최종 발표에서 더욱더 완성된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탐구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나 모둠원들과 협력하는 방법, 수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 등을 이번 영재캠프를 통해 배워서 나의 머릿속이 지식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남은 영재학급 생활을 잘 보내고 싶다.

리더십 캠프 소감문

1학년 박주형



리더란 무엇일까? 리더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리더'란 "모두가 같이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존재" 라고 정의하고 싶다. 리더의 책임감, 리더의 정직함, 리더의 신중한 선택, 모두 사람과 교감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큰 사회로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서서히 사회의 의미를 확대해 나가며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색해왔다. 만약 우리가 그 공동체의 리더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지가 매우 큰 과제 일 것이다.

나는 이번 임원수련회가 리더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데에서 매우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적절하지 못한 시기 때문에 예정된 수련회보다는 작은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함께 운동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고 서로를 알아가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 다른 리더들과 교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라는 새로운 리더, 혼자가 아닌 여럿을 대변하는 리더, 리더는 결코 한 사람으로 무리를 이끌 수 없다. 나는 이번 임원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서로를 존중 할 줄 알고 믿어줄 줄 아는 발전된 리더의 모습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 더 굽힐 줄 아는 사람,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닌 같이 걸어주는 사람.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험하고 고단한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리더로서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짧은 만남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리더로 향하는 길을 걷게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다음 모임에서도 서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적절하지 못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준 환일의 리더들과 항상 좋은 말씀으로 학교를 이끌어주시는 이사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감독 주관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전쟁 기념관 문화탐방 소감문

3학년 김준수



2020년 7월 23일 3학년 학생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과 함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문화탐방 겸 졸업사진 촬영을 떠났다.

1학기 기말 고사가 치러진 후에 이루어진 학교 행사인 만큼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작년까지 선배 형들의 졸업 사진 촬영지는 덕수궁이나 경복궁 등 고궁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올해에는 졸업 사진 촬영에도 변수로 작용하여 고궁에서 졸업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학교에서 졸업 사진 촬영지로 선정된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이였다.

코로나의 여파로 전쟁기념관은 한없이 한적하기만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문을 지나 광장에 들어서면서 어릴 때 많이 왔었던 경험이 떠올라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내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과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 목적을 상기시켰다.

벌써 3학년의 절반이 지나 졸업사진을 찍을 시기가 왔다니, 무언가 후련하면서도 또 씁쓸하기도 한,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도 다들 나와 같은 마음이었던 건지, 지난 2년간 환일에서 있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금세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환일에서의 또 다른 추억이 쌓여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소감문을 남긴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뛰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 잠시나마 무거운 학업의 짐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는, 또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소감문, 감상문

공유 캠퍼스 수업 소감문

2학년 심재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는데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자료 구조에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신청했다. 수업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나 알고리즘 등을 배웠다. 파이썬을 이용하여 배열, 큐, 스택, 연결리스트, 해시 테이블, 트리구조가 어떻게 동작하고 사용되는지 배웠고 프랑스의 '에콜42 입학 테스트'나 '비버 챌린지' 같은 알고리즘에 관한 창의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풀면서 알고리즘과 익숙해질 수 있었다. 수업 듣기 전에는 파이썬을 잘하지 못했는데 언어가 어렵지 않고 수업에서 쓰이는 문법과 함수는 수업 중에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파이썬을 잘하지 못해도 문제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관한 재미있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코드만 이해하고 작성하려다 힘이 빠지는 일 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수업을 듣고 바뀐 생각은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데이터의 처리 방식과 알고리즘을 잘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짤때 천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또한, 자료구조 수업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고치려다 다른 멀쩡한 코드도 망치곤 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은 후에는 코드의 동작 순서와 방식을 먼저 체크하고 작성하게 되어 오류도 적어지고 오류가 있다고 해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이썬의 문법도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게임의 코드를 짤 때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작성하게 돼서 게임 개발 중의 문제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적 AI의 알고리즘 등을 고쳐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다거나 그래픽의 최적화를 진행할 때도 수업 때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구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익했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양대 공학 캠프 소감문

1학년 임상하



어릴 때부터 기계와 비행기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학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신청했다. 평소에도 공학에 관해 관심이 있던 터라 수업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공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생활 속의 모든 공간에는 이러한 공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공학이라고 해서 꼭 거창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학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모형과 기계들을 만들었다. 팬과 필터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사일로, 연료전지 모형, 열전소자를 이용한 회전목마, 초음파를 이용한 가슴기 그리고 압전소자 텀버린을 이용한 충전 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원리들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흥미로웠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연료전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건전지와 같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 없이도 (-)극인 마그네슘과 (+)극인 탄소 시트 그리고 전해질로 사용되는 소금물을 묻힌 거즈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료전지가 생명체의 혈액이나 쓰레기, 폐수의 유기물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다. 핏속의 포도당을 이용한 연료전지는 심장 박동 조율기, 신경 자극기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추후 의료 과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업 내용이 끝난 후 영화에서 수업한 내용과 관련된 기술이 쓰이는 경우 또는 과거에 사실과 사회적 현상에 관해 설명해주셨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설명해주셔서 더욱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주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이론과 다양한 원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론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장치와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모형이 작동하지 않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강사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다시 가르쳐주셨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했고 더 잘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무더운 여름에 학교까지 찾아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시고 학생들을 배려해주신 강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환일고 필독도서 감상문

'데미안'을 읽고

1학년 이준혁



이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선하고 밝은 세계와 어둡고 약한 두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차례 내적 성숙을 이루면서 두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인식하며 두 세계 사이에 공존하게 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적 성숙을 이루고 시련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또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닮지 않은 모습 등의 묘사를 통해서 선과 악 사이 공존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악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작가가 제시한 악의 세계에는 항상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선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이분법적 관점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관념과 가치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져, 현대 세계는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누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우물처럼 깊다고 생각되어 심오한 이해와 다른 해석을 위해 여러 차례 더 읽어보고 싶으며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연필로 쓰기'를 읽고

1학년 박도원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산문 형식으로 쓰인 글을 읽어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처음에 느꼈던 점은 약간 일기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초반에 글을 읽으며 정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다. 감정들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딱 알맞고 유려한 표현을 선택해낸다.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글쓰기의 최종 목적지를 보는 것 같았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김훈이라는 사람이 칼의 노래의 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누나가 칼의 노래의 문장이 호흡이 너무 짧아 읽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이 책이 조금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는 무척 잘 맞았다.

내가 알게 된 김훈은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시간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체득한 사람 같았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을 몸에 익히고, 그것들을 글로 옮기며 받아 들였다. 그의 그런 자세가 무척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그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것이다. 산문에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워낙 날카로운 생각들이라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도 그의 글을 보며 나의 글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김훈의 또 다른 저서를 더 찾아봐서 읽어보고 더 많은 글들을 써봐야겠다.



교내수상

수리 창의력 대회 금상



3학년 박은성



3학년 송건



3학년 이재훈



3학년 유승훈



3학년 김태민



3학년 김준수



2학년 이진호



3학년 원방산

물리 창의력 대회 금상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금상

중국 상식퀴즈 대회 금상

영어 단어 향상 대회 금상

인문학 특강 대회 금상

논술왕 대회 금상



2학년 오재환



2학년 나준호



3학년 김경환



3학년 박예찬



1학년 안우진



1학년 이민재



1학년 이영웅



3학년 김준수



3학년 박다솔

과학독서 탐구대회 금상



1학년 이승현



1학년 주재영



1학년 백재승



2학년 김승범



2학년 김현수



2학년 권현준



3학년 오태훈



3학년 김경환



3학년 엄찬호

다독왕 대회 금상

영어에세이 대회 금상

생명과학 창의력 대회 금상

지구과학 창의력 대회 금상

세계지리 탐구 대회 금상

성경퀴즈 대회 금상

중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



1학년 안우진



2학년 이태연



1학년 이준혁



2학년 정찬우



3학년 김준수



3학년 김태민



2학년 임정민



2학년 박창하



3학년 이승한

성경 퀴즈대회 단체상

1 금상 2학년 1반 (이승원 선생님)

2 은상 2학년 6반 (김춘근 선생님)

3 동상 2학년 4반 (이은형 선생님)

다독왕 참여 우수 학급상

금 상

1학년 5반(김주경 선생님)
2학년 1반(이승원 선생님)

은 상

1학년 7반(변영지 선생님)
2학년 2반(김경신 선생님)

동 상

1학년 1반(박현주 선생님)
1학년 9반(김철우 선생님)
2학년 3반(박경하 선생님)
2학년 4반(이은형 선생님)



2학기 주요일정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개교기념 예배 · 26일 개교기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6일 중간고사 · 20일 중3 학부모설명회 · 27일 고3전국연합학력평가 · 30일 봉학마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일 추수감사예배 · 18일 고1,2 학력평가 · 23일 설립자 추모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 7일~11일 고3 기말고사 · 14일~18일 고1,2 기말고사